

인도의 大慘事와 우리의 姿勢

- 多國籍企業 UNION CARBIDE 를 고발한다 -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委員長>

1

이번 印度에서 大慘事를 일으킨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 會社는 「Science Hel-
ps build a new India」라는 구호 아래 인도로
進出한 세계적 多國籍 公害企業이다.

今世紀 최악의 산업 재해로 기록될 印度 보팔
市 가스 누출 참사는 12월 5일 현재 死亡者는
2천 5백명, 그외 5만명의 被害者중 2~3천
명은 失明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뉴델리 外信에 의하면, “보팔市 빈민촌 밀집
지역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
공장에서 누출된 치명적 有毒 가스는 45분 사
이에 인근 地域 40 km를 뒤덮어 보팔市의 약 4
분의 1 넓이에 해당하는 地域과 인근 3개 마을
이 일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고 한
다.

하얀 가스 연기는 거대한 구름 더미가 꽤
市街地를 뒤덮었고, 가스 死神이 덮친 순간의
참혹상을 살아남은 한 住民은 “毒가스室안의 아
수라장”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수 많은 市民들이 잠자리에서 구토와 기침,
그리고 폐를 찢는 듯한 고통속에 그대로 숨져
갔으며, 거리는 온통 정체도 모르는 死神을 피
해 대피하는 인파로 난장판으로 변했고, 가스를
마신 市民들은 거리 곳곳에서 오물을 토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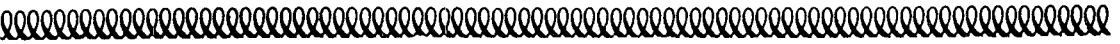
쓰러졌으며 눈에 화상을 입은 피해 주민들은 방
향조차 잃은채 허둥거리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20여만명의 住民들은 무작정 높은 地帶를 찾
아 앞을 다투어 대피, 보팔市 全域이 마치 대구
모 폭격을 받은 都市처럼 변했고 피난민의 물결
이 거리를 메웠다고 했다.

날이 밝은 뒤 드러난 사고 현지의 모습은 한층
참혹한 것으로 유니온 카바이드 工場 주변의 슬
럼가는 온통 인적이 끊긴채 유명 都市로 변해 있
었으며, 길거리에는 死亡者와 소, 말, 개 등 가
축의 사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하늘을
날던 수많은 새들까지 질식해 떨어져 죽은 모
습도 보였다고 한다.

2

美國에서 세번째로 큰 化工業 그룹인 유니온
카바이드는 지난해 총 賣出額이 90憶 달러를
넘는 大企業으로 40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10萬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주로
Fields of Carbons, Chemicals, Gases, Me-
tals, Plastics 과 Nuclear energy 등 당장은
이롭게 보이지만, 절대적인 公害源을 全世界에
뿌림으로서 多國籍, 世界的 企業으로 成長한 것
이다.



내가 유니온 카바이드를 처음 만난 것은 10여년 前 日本에서 였다. Coca Cola가 분명한 公害食品이면서도 美國이라는 엄청난 權力(?)을 등에 업고 全世界를 휩쓸을 수 있었듯이, 유니온 카바이드도 美國이라는 배경으로 日本을 좀먹고 있었을 때였다.

朝日新聞의 M記者가 日本에 進出한 유니온 카바이드의 公害性을 告發하는 記事를 정리하다가 내게 감동적인 環境보호 운동의 한 例를 건네 주었다.

이름하여 <앤무어 市民 委員會의 活動>이라는 것이었는데, 유니온 카바이드가 本國인 美國에서 公害 때문에 美國國民의 눈총을 받았던 이야기였다.

※ 美國人を 괴롭힌 유니온 카바이드

웨스트버지니아주 앤무어에는 그 마을을 유지하는 한가지 工業만이 있었다.

이곳에는 적절한 下水道 시설이나, 公園, 또는 건강 상담소도 없었다. 여기에다가 住民들이 마시는 공기는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의 7個의 굴뚝에서 내뿜는 검댕과 매연으로 차 있었다. 그러나 住民들 대부분이 이 회사에 취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일어나 이러한 생활에 도전했다. 바로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테일 해지돈」이라는 사람이였다.

그는 新聞과 雜誌에서 “유니온 카바이드의 작은 조각 조각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라는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의 廣告를 찾아냈다. 그는 이 廣告 文句를 인용해서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에서 나오는 그을음과 매연은 내 집에만 있었던게 아닙니다. 내 옷에도, 내가 마시는 공기에도, 내 허파 속에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해지돈씨는 당장 유니온 카바이드로 부터 해고 당했다. 그리고 더 이상 떠들면, 명예 훼손으로 고발 당한다는 위협과 정체가 불명한 사나이로 부터 테러를 받았다.

그러나, 테일 해지돈씨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私費로 <카본 카피>라는 Leaflet을 만들어 住民들에게 나누어 주고, 캠페인을 폈다. 住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앤무어 마을에 있어서 汚染은 이미 住民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生活의 事實이었기 때문이다.

해지돈씨는 외쳤다.

-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 우리는 汚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 우리는 公害를 추방할 권리가 있다.

住民들은 霍를 입어가면서 앤무어 마을을 지키려는 해지돈씨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었읍니다> 나중에 한 住民이 회고했다.

住民들은 해지돈씨와 함께 <깨끗한 大氣를 위한 앤무어 市民 委員會>를 조직하여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지돈씨는 미국 헌법 제 5, 제 9, 제 14 수정 조항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미국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소송의 요지에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앤무어 주민들은 과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놀라운 용기로 유니온 카바이드와 맞섰다. 이런 앤무어 住民의 環境보호 활동은 미디어를 통해 全國的인 주시를 받게 되었다.

住民과 言論 그리고 유니온 카바이드와 美國의 利益(?)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그러나 싸

움(?)은 간단히 끝났다. 여론의 나라답게, 연방 정부의 새 환경보호청이 권력의 이정표로 등장하여 즉각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에게 汚染物質 배출을 중지하도록 命令했고, 유니온 카바이드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40%로 감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1년 초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는 大氣汚染 방지 설비의 구입과 새로운 용광로 건설을 위해 85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것이 바로 유니온 카바이드가 그들의 公害産業을 후진국으로 移轉하게된 동기며, 오늘 날 多國籍 大企業으로 成長하게된 아이로니칼한 始發이었다.

3

先進國의 有害物質 생산 産業 내지 公害産業의 對後進國 移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70年代 中반 이후, 제 3세계를 비롯한 新興工業國으로의 先進國 公害産業의 進出은 두드러진 추세가 되었다. 즉 美國 등 先進工業國 企業들은 製造工程이나 製品 자체가 위험성이 높거나 人體 및 環境에 有害한 産業과 公害物質 排出 産業에 대한 自國內의 規制 조치가 強化되고 安全施設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늘어나 後進國으로의 進出을 하나의 타개책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後進工業國은 당장의 經濟成長만을 評價해 이러한 公害産業의 移轉을 적극 환영, 公害産業의 對後進國 移轉을 하나의 經濟 원조, 先進國의 先심 내지 技術開發 등으로 합리화, 정당화 시키고 있다.

이번, 인도의 경우도 유니온 카바이드의 인도 進出을 인도의 經濟成長 내지 科學技術의 부흥으로 評價하여 받아 들였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니온 카바이드 측에서는 全世界에 公同연히 Science helps build a new India를 외친 것이다.

하여간, 이번 인도의 慘事를 부른 유니온 카바이드 사건의 정체는 살충제 기초 원료인 메틸 이소사이네이트 즉 MIC로 전해지고 있는데, 國內 報導에 의하면(12월 6일자 한국일보) “우리나라의 경우 제철화학, 진흥정밀 등 4個 業體가 문제의 MIC를 생산하고 있고 이를 원료로 韓農 등 11個 業體가 벼멸구 살충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MIC 生産業體의 年間 生産量은 8천 6백톤 정도로 막대한 量이지만 인도와는 달리 生産 즉시 살충제의 다음 단계 원료로 合成하는 일관 工程을 쓰고 있어 MIC를 별도로 저장하는데 따른 불편과 위험은 없다는 것이 관련 業體 및 專問家들의 설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MIC 문제 뿐만 아니라 가스 연료의 급격한 보급과 지금 한창 진행중인 대규모 천연 가스 基地의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의 安全問題가 걱정이다.

하루 속히 保護施設을 完全히 갖추도록 政策的 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인도의 慘事를 他山之石으로 삼는 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投稿案内

會員 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各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 현황, 공지사향 그리고 제언이나 시·수필 등을 수시로 본 협회 홍보부(753-7669)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高度産業化 社會에서 必然的으로 惹起되는 環境汚染

쾌적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은 복지사회의 기본요건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귀업소의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드리하고자 아래 업무를 개시하고 여러분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측정 대행

1. 자가 측정
 - 대 기 : 입자상물질(분진), 검댕(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특정유해물질
 - 수 질 : pH, COD, BOD, SS, N-Hexane 추출물질, 중금속, 특정유해물질
2. 기 타
 - 환경의 질 분석, 음료수적부시험, 용수·오수·분뇨 분석, 방지시설 성능시험

◎ 실험실습교육

환경관리기사의 실무적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실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실 운영

궁금한 문제에 대해 항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 상담분야 및 이용전화 —

환경관련기술 : 718-5836, 3410

환경관계법규 : 352-6841

◎ 종합진단 및 기술지도

설계상 또는 운전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기존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처리효율 측정, 기능 파악등의 종합진단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설치계획중인 방지시설의 설계도면의 기술검토를 해 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행

우수한 장비와 기술진을 갖추고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활용하여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토대로 한 환경영향의 예측평가와 상세한 대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環境問題를
해결해
드립니다.

우수한
技術人力을
會員社에
추천합니다.